

정동영 후보

대선 '지지율 제고 전략' 본격 시동

이명박 후보

2007년 판 '희망대지...' '행복프로젝트' "동네마다 철저히 챙겨라" 특명

정책 개발·자발적 선거운동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2007년 판 '희망대지 저금통'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행복 프로젝트의 양대 핵심은 '정책 콘텐츠'와 '자발적 선거운동'이다.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정책 대안과 선거운동 방식 등을 제안하도록 하고 이를 토론회를 통해 정제된 뒤 선거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공약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서포터스 조직을 확산시키는 계기로도 삼겠다는 이중포석이 담겨 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국민참여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서 소액모금운동인 '희망대지 저금통' 운동을 이끌며 '왜지야 빠'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그가 이번에는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대선 승리의 신화를 다시 쓰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복 프로젝트는 온·오프라인에 동시 설치되는 '행복저축은행'과 '행복우체국'에 의해 이뤄진다. 지역거점마다 설치되는 행복우체국이 유권자들로부터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정책 콘텐츠나 아이디어, 민원 등을 접수받고 이를 행복저축은행에 적립하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김근태 상임고문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오찬회동을 갖기에 앞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된다. 행복저축은행은 각종 콘텐츠를 보관하고 토론에 부쳐 거르는 역할을 한다.

또 행복우체국은 하루 지역단위에 설치되어 유권자들이 행복우체통에 메시지를 보내면 지지자들이 이뤄진 행복배달부가 이를 행복우체국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역할을 하게 된다.

행복배달부의 외연 확대를 위해 정 후보

측은 전업주부, 퇴직공무원, 대학생을 상대로 '행복배달부'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 측은 이를 '유권자 창조형 캠페인'(UCC, User Created Campaign)으로 부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후보 측은 조만간 대선기획단에 '행복 캠페인'을 진두지휘할 'UCC 선대위'인 '가족행복본부'를 발족해 향후 선대위로 흡수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 암사재활원을 방문, 한 어린이로부터 기쁨뽀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슬로건 및 로고송 제작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밀바닥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바닥 조직 확산에도 적극 나섰다. 공중전과 지상전을 동시에 펼치며 득표력을 배가시킨다는 전략이다.

대선 후보의 이미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슬로건과 로고송. 한나라당은 금주 초까지 슬로건 및 로고송 공모를

진행, 이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와 대중성이 빛나는 작품을 선정해 대선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작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수로통심개'(水路通心開; 물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새 시대의 물欸'(=물이 흘러 빠져나가는 작은 도랑)로, 국민의 숨통을 터 드릴것입니다' 등이다.

이 후보의 '강점'을 내세운 슬로건도 많았

슬로건·로고송 제작 박차

다. '세계는 경제 전쟁, 이젠 우리도 경제다', '경제대국 대한민국, 이명박의 눈에 보인다', '경제가 살면 다 삽니다' 등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현재까지 20여 곡이 제안된 로고송의 경우 기존 선거에서 이미 인기를 끌던 트로트 곡의 가사를 개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통령 자격 명박 뿐이지, '무조건' 밀어줄 거야", "이제는 경제대통령, 이명박 바랍니 불가야~"라는 식이다.

이 후보는 또 '밀바닥 표심줄기'를 위해 최근 당협위원장들에게 '동(洞)별 득표전략'까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앙선대위가 지휘하는 '공중전' 못지 않게 지방조직 중심의 '지상전'에도 전투력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이 후보는 최근 이 방송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직책임자들에게 "동네마다 철저히 챙겨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 선대위와 조직국은 각 시·도 당에 광역권별은 물론 당원협의회, 동별 유권자 수와 과거 득표율, 올해 대선 득표 목표치 등을 제시토록 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현단계 鄭 '소극적 지지'"

후보 단일화 문제 "조건과 환경 무르익어야"

청와대는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현단계에서는 '소극적 지지' 상태이며, 정치적 신뢰를 회복해야 적극적 지지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 "조건과 환경이 성숙돼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보였다.

정동영 후보가 대선승리를 위해 노 대통령과의 적극적인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적극적 지지를 유보하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정 후보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

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소극적 지지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당이 과거 여권의 맥락을 잇는 정당이고,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이 참여정부와 공감대가 넓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정당한 과정을 거쳐 선출된 후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청와대가 정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비록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소극적 지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러나 노 대통령과 정 후보의 관계회복과 관련, "(열린우리당 해체 과정에서 쌓인) 단순한 감정상 양극이 아니다"면서 "긴 안목에서 정치를 함께 해나간다

고 할 때 정치적 원칙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정치적 원칙에 대해 정 후보가 신뢰를 보여줘야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최근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조건과 환경이 무르익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거나 단일화를 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범여권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한 이재오의원 등 자동차도로서 자전거 타다 즉심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해 추석 연휴에 한반도 대운하 자전거 탐방에 나섰던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

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지난 달 26일 오전 11시에 한반도 대운하 자전거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10여분간 자전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올림픽대로에서 이 최고위원과 함께 자전거를 탄 대운하 지역추진본부 관계자 13명도 함께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호남 求愛 행렬을 지켜보며



정후식 정치부 차장

5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모두 끝난 뒤 첫 주말인 지난 19일부터 청와대 입성을 꿈꾸는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광주·전남을 찾고 있다. 장외 후보들도 예외는 아니다. 너도 나도 구애(求愛)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가히 '호남 행 러시'라 할만 하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왜 하필 호남으로 몰려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최근 두 차례의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선거관의 흐름을 바꿔버린 호남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단일화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범여권 후보들은 호남 민심의 풍향계인 광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당선을 위해서는 호남에서 최소한 두 자릿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 이인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이수성 전 총리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들은 지난 19일 나란히 광주·전남을 찾았다.

충청 출신인 이인제 후보는 광주 기자회견에서 "호남

과 충청은 연합이 아니라 일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서부벨트 복원론을 폈다. 지난 1997년 대선 승리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며 은근히 지역정서를 자극한 것이다.

권영길 후보도 순천을 시작으로 민생투어에 돌입하며 "이번 대선은 IMF 체제와 사회양극화 체제를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한나라당과 현 정부를 겨냥했다.

20일에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시·도당 창당대회에 참석, "'사람중심 진짜경제'가 이겨야만 광주정신이 경제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구애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전국 첫 필승결의대회를 22일 광주에서 갖기로 했다. 제주부터 시작하려다 호남이 전략 지역이라는 판단에서 광주를 출발점으로 잡았다고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도 당초 22일 광주를 찾으려다 29일께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전남을 찾은 후보들은 그럴싸한 구호와 '장밋빛 국가비전'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밭의 성찬'이다. 더러 지역 발전 공약도 선보이고 있지만, '낙후의 대명사'가 돼버린 광주·전남의 미래를 바꿔줄 만한 밑그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에게도 별다른 표정이 없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일까. 누구에게도 압도적 지지를 보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뇌리엔 과거 대선 주자들과 정당들의 행태가 뚜렷이 각인돼 있다. 선거 전에는 대규모 개발이든, 인제 등용이든 닦치는 대로 약속했다가 투표가 끝나면 어쩔쩔 넘어가버린 사례가 어디 한 두 건인가. 결국 진정성이 문제다. /who@kwangju.co.kr

아름다운 기업-이서아나항공

아시아나, 10월 30일 광주↔베이징 취항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까지 아시아나가 2주 2회 더 편리한 스케줄과 세력이 인정받은 서비스로 모십니다. 이제 광주에서도 편안한 베이징 여행은 역시 아시아나입니다.

광주 → 베이징

항공 1500여회편, 반도착 0건

항공 1055여회편, 14003명 고객

* 베이징 시외는 최고 1시간 30분 소요되며, 베이징 시내에서 1시간입니다.

● 문의 및 예약 : 1565-8300 · fly@airkorea.com

아시아나항공